

각 사과 신품종의 상온(25℃) 저장성은 저장 후 20일에 평균 10%의 감모율을 보였고 특히, ‘피크닉’은 30일째에 당초 과중 대비 80%로 20% 감모율을 보였다. 저온(4℃) 저장성에서는 ‘황옥’이 저장 30일째 1%의 감모율을 보인 반면에, 나머지 품종들은 5%정도의 과중 평균 감모율을 보였다(그림 2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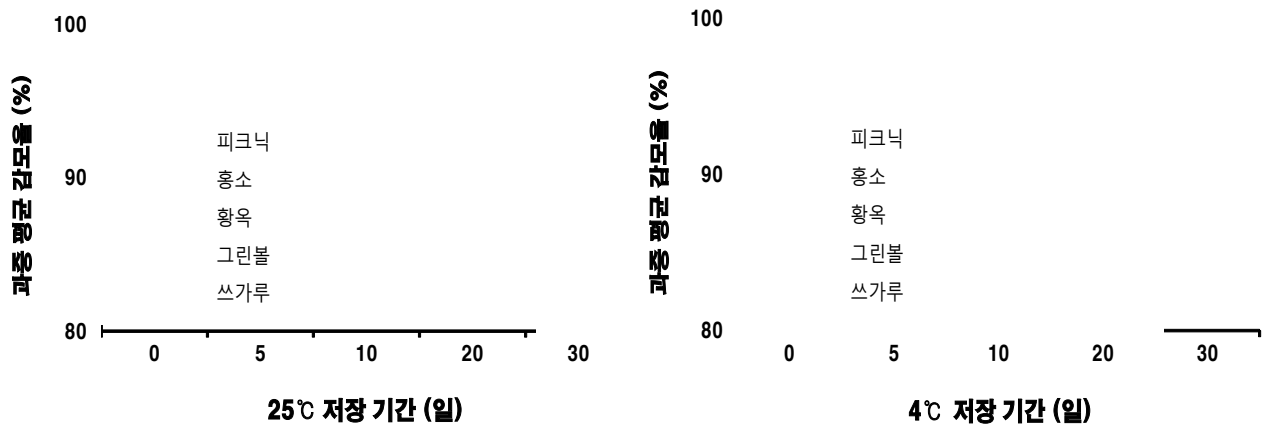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시험 품종별 저장성 비교.

4) 시험 품종별 낙과율

사과 신품종의 시기별 누적 낙과율은 그림 3과 같았다. ‘피크닉’과 ‘황옥’은 10월 하순까지 13~25%의 누적 낙과율을 보인 반면, ‘홍소’는 9월 상순에 평균 85%의 낙과율을 보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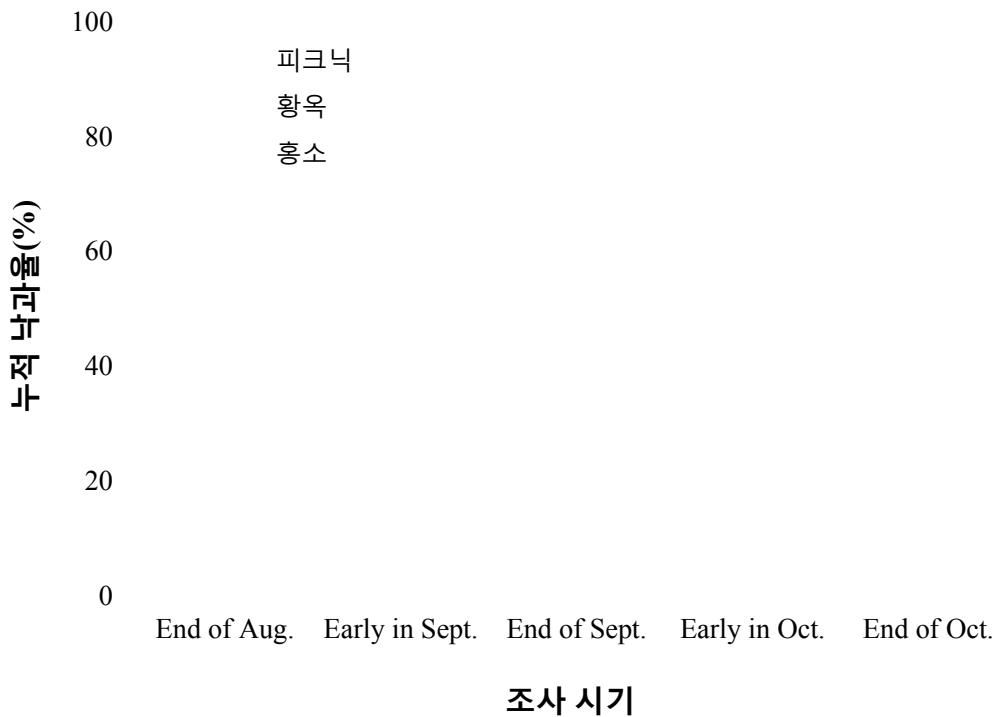


그림 3. 시험 품종별 누적 낙과율